

## ◎ 프롤로그

세상이 생겨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창조한 하늘의 신에게는 신비한 능력을 지닌 11가지의 보물이 있었다. 이 보물은 마법의 검, 신비로운 낫, 마법의 돌, 적토마, 뭐든 열수 있는 열쇠, 신비로운 영약, 활, 아름다운 구슬, 청룡도, 요술 거울, 뭐든 담아 봉할 수 있는 호리병이었다. 하늘의 신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은 하늘의 신과 달리 욕심이 많고 포악한 신이었다. 동생은 작고 아름다운 땅인 한반도의 5개의 궁궐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늘의 신에게 말했지만 하늘의 신은 어진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한반도의 궁궐들을 그 어느 것보다 사랑했다. 동생은 하늘의 신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자 있는 데로 화가 치밀었고, 그 길로 주술사를 찾아가 잠에 깊이 빠지는 약을 제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약을 제조해 주는 대가로 주술사는 영원불멸의 삶을 달라고 하였다. 그는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러겠다고 했다. 하늘의 신은 어진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의 중심에 신령스러운 나무라는 뜻의 신단수를 심었다. 한반도는 푸른 풀이 무성히 자라나고 풍요롭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자신의 보물을 지켜줄 11명의 무사들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자 하나씩의 보물을 주어 잘 지키도록 하였다. 계속 기회를 틈타던 동생은 하늘의 신이 항상 마시던 술잔에 주술사가 특별히 제조해 놓은 약을 탔고, 하늘의 신은 강력한 마법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졌다. 동생은 하늘의 신의 무사들로부터 11가지의 보물을 빼앗기 위해 자신의 뜻을 이루게 도와줄 생명체를 만들어 냈다. 그가 만들어낸 생명체는 번식력이 강해 금세 그 수가 늘어났다. 그가 만들어낸 생명체들은 하늘의 신의 무사들과 싸워 11개의 보물을 빼앗았다. 그리고 한반도 한 가운데 심겨진 신단수의 정기를 빼앗아 시들게 하였다. 그때 깊은 잠에서 깨어난 하늘의 신은 동생이 저지른 만행을 보고 화가나 그를 하늘에서 내쫓아 깊은 어둠의 땅으로 쫓아 봉인해 버렸다. 그가 어둠의 땅에 봉인되자 11명의 생명체들은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 버렸다. 하늘의 신은 자신의 보물을 되찾기 위해 11명의 무사들을 보냈지만, 이미 지하세계의 어두운 힘을 가진 자들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11명의 무사 중 단 4명만이 살아서 돌아왔다. 보물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 판단한 하늘의 신은 주술사를 찾아가 자신의 불멸을 줄 테니 남은 4명의 무사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불멸을 얻게 된 주술사는 기꺼이 하늘의 신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한편 어둠의 땅에 봉인된 하늘의 신의 동생은 점차 몸이 재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고, 주술사에게 자신의 가장 지혜로운 신복을 보내어 협상을 했다. 만약 자신을 살려준다면 한반도의 아름다운 궁궐의 반을 주겠다는 약속 이었다. 주술사는 한반도의 아름다운 궁궐에 욕심이 나 마법을 부려 수 백 년이 지난 후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그가 재로 변하자 그의 신복들도 보물을 간직한 채 한반도의 궁궐 곳곳에 흩어져 재로 변해 버렸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게 될 때 그의 신복들도 부활할 터였다.

## ◎ 시놉시스(줄거리)

설화와 모랑은 학교에서 방학숙제로 내준 숙제를 하기위해 법주사로 가던 중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황급히 정이품송 아래로 몸을 피한다. 그 정이품송 아래에서 모랑은 붉은 빛이 감도는 구슬을 줍는다. 잠시 뒤 소나기가 그치고 법주사로 들어간 설화와 모랑은 쌍사자 석등의 사자가 한 마리는 입을 벌리고 한 마리는 다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신기해한다. 그때 호기심이 발동한 모랑은 벌려진 사자의 입 속으로 손을 넣고, 사자의 입 속에서는 황금빛이 나는 열쇠가 나온다. 그 열쇠를 가지고 법주사를 둘러보던 설화와 모랑의 시야에 대웅보전 계단 옆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책에서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문을 발견한다. 호기심이 발동한 모랑은 비밀의 문을 여는데, 열리지 않자 모랑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사자의 입 속에서 꺼낸 열쇠를 넣어 문을 돌린다. 문이 열리고 법주사 마당을 쓸던 동자승 영루가 돌부리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설화와 모랑을 밀치게 되고, 그들은 같이 비밀의 문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비밀의 문 속은 한치 앞도 분간하기가 어려운 암흑이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세 아이의 앞에 환한 빛을 내는 전령이 나타난다. 전령은 세 아이를 각듯이 모시고 호화스럽고 웅장한 방으로 안내한다. 방의 화려함에 넋을 잃은 아이들 앞에 낡았지만 웅지 모를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지도를 내어 놓는다. 어리둥절한 아이들에게 전령은 과거 한반도의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한반도의 궁궐을 장악하려는 심산으로 하늘의 보물을 빼앗은 수 백 년 전 어둠의 세력과 그의 신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다시 부활할 신복들과 어둠의 세력을 퇴치해 줄 것을 부탁한다. 하지만 세 아이는 말도 안 된다고 전령의 말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들어 온 비밀의 문을 찾아 나간다. 그때 갑자기 칠혹 같은 어둠이 도래하고 정신을 잃은 세 아이가 눈을 떴을 때는 법주사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그때 갑자기 법주사의 석연지에서 흉악한 요괴가 나타나 모랑이 들고 있는 열쇠와 구슬을 빼앗으려 한다. 본능적으로 열쇠와 구슬을 빼앗기지 않으려 방어하던 모랑은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백련이 모랑을 위기에서 구해준다. 백련은 메고 있던 검으로 요괴를 퇴치하고 요괴는 쓰러짐과 동시에 모랑이 주웠던 구슬에 봉인된다. 갑작스런 상황에 세 아이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백련은 그들에게 다시 비밀의 문을 열 것을 강요한다. 전령은 돌아올 줄 알았다는 듯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들에게 지도와 함께 쌍둥이 수호신이 그들을 동행하도록 한다. 지도 속 요괴들이 가지고 있는 예전 하늘의 보물을 되찾고, 요괴를 봉인해야만 이 땅에 도래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한반도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의 재를 시들어버린 신단수에 뿌려야만 다시금 신단수가 살아나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찾은 네 가지의 보물을 지켜내며 (열쇠와 구슬, 백련이 메고 있는 검, 신비로운 낫) 나머지 보물 7개를 찾기 위해 한반도의 궁궐로 향한다. 한반도의 궁궐에서 부활한 요괴들과 싸우며, 하나 둘 보물을 모아가던 중 랑랑과 풍풍이 모랑을 보호하려다 큰 상처를 입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한편 우두머리의 움직임이 서서히 드러나고, 우두머리 요괴는 주술사와의 약속을 어기고, 배신한다. 그런 우두머리 요괴에 화가 난 주술사는 아이들에게 작은 약병을 건네고...

마지막으로 우두머리 요괴와의 혈투 끝에 백련의 희생으로 요괴를 물리치고 마지막 보물인 적토마를 빼앗는다. 적토마를 타고 신단수로 간 아이들은 구슬 속에 봉인된 어둠의 세력의 재를, 신단수에 뿌린다. 신단수는 예전처럼 푸르고 영롱한 빛을 내는 나무가 된다.

## ◎ 캐릭터

### ▶ 모랑(남)

14살. 하늘의 신의 11명의 무사 중 살아남은 4명의 무사의 환생. 불의를 못 참는 정의로운 성격. 하지만 덜렁대 실수를 연발하기도 한다. 우수한 혈통을 타고났다. 두뇌가 명석하고 사리판단이 빠른 아이. 용맹스럽다. 리더 적 역할. 설화를 좋아한다.

### ▶ 설화(여)

14살. 하늘의 신의 11명의 무사 중 살아남은 4명의 무사의 환생. 예쁘고 사랑스런 외모를 가진 여자 아이. 정이 많다. 능력이 약하다.

### ▶ 영루(남)

14살. 하늘의 신의 11명의 무사 중 살아남은 4명의 무사의 환생. 겁이 많고 남의 말에 잘 휩쓸리며, 눈물이 많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아직 모르고 있을 뿐.

### ▶ 백련(여)

하늘의 신의 11명의 무사 중 살아남은 4명의 무사의 환생.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똑똑하며 냉철하다. 인정사정 보지 않는 성격. 하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을 뿐 마음속엔 동료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

### ▶ 랑랑과 풍풍

쌍둥이 수호신. 그들의 모습은 작고 예쁜 날아다니는 요정의 모습. 궁궐에 대한 해박한 설명과 함께 네 명의 주인공을 안내하고 보호해 주는 역할. 주인공들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 네 명의 주인공이 한반도의 문화유산을 지켜내고 요괴를 봉인하도록 도와주는 숨은 조력자.

### ▶ 전령

하늘의 신의 환생. 영원한 생명을 주술사에게 준 하늘의 신은 주술사의 힘을 빌어서 전령의 모습으로 잠시 환생. 네 주인공에게 요괴를 퇴치해야 할 이유와 요괴퇴치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 ▶ 요괴와 어둠의 세력

한반도의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한반도의 궁궐을 장악하려는 계락을 품고 수백 년 만에 다시 부활한다. 11가지의 보물을 빼앗아 가지고 있으며 궁궐 곳곳에 숨어 한반도를 장악할 기회를 노린다.

### ▶ 주술사

하늘의 신과 그의 동생으로부터 불멸의 삶과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교환. 그들의 바람을 이루어주고, 아이들이 어둠의 세력(우두머리 요괴)을 봉인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 ◎ 아이템

### ▶ 11가지의 보물

아름다운 구슬  
뭐든 열수 있는 열쇠  
마법의 검  
신비로운 낫  
활  
신비로운 영약  
요술 거울  
마법의 돌  
청룡도  
뭐든 담아 봉할 수 있는 호리병  
적토마

## ◎ 시나리오

### 썸1. 법주사 주위 - 낮

맑고 화창한 에메랄드 빛 하늘 아래 초록으로 우거진 오리 숲과 법주사의 전경이 보이고, 법주사로 향하는 황토 빛의 구불구불한 길 저 만치서 걸어오는 아이들의 모습.

단단해 보이는 외모에 장난기를 가득 머금고, 여자아이 주위를 활기차게 맴돌며 끊임 없이 우스꽝스런 제스처를 해 보이는 남자아이와 백지장처럼 하얀 얼굴에 상냥한 미소로 그런 남자아이를 귀엽다는 듯 바라보는 여자아이.  
바로 모랑과 설화다.

설화 : 그만해, 너무 웃어서 배가 다 아플 지경이야, (손으로 아직한 작게 보이는 법주사까지의 거리를 가늠해 보며) 아직도 멀 은건가?

모랑 :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 다리 아프면 내가 업어줄까?

설화 : 뭐~어? (얼굴이 빨개진다)

모랑 : (능청스럽게) 얼른 업혀! 응?

모랑은 설화를 향해 계속 업히라는 시늉을 하고, 설화는 그런 모랑의 등을 손바닥으로 짹-내려치고는 부끄럽다는 듯 두 뺨을 감싸 쥔다. 그런 설화의 손바닥이 꽤나 매웠는지 등을 문질러 대며 오두방정 엄살을 피우는 모랑.

그때, 맑던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새까만 구름이 몰려오고, 후드득 세찬 소리와 함께 소나기가 쏟아진다.

설화 : 앗! 차거!

모랑 : (손바닥으로 설화의 머리에 우산을 만들어 주며 주위를 살핀다.) 어? 저기 저 나무 아래로 우선 피하자!

모랑과 설화는 가지가 길게 늘어진 정이품송 아래로 황급히 몸을 피한다.

### 썸2. 정이품송 아래

얼굴에 묻은 빗방울을 손으로 닦아내는 설화.

모랑은 얼른 자신의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려다 땅바닥에 손수건을 떨어뜨린다.

손수건을 주우려 몸을 아래로 숙인 순간 모랑은 세찬 빗물에 패인 정이품송 나무 등지 속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한다.

살짝 붉은 빛이 감도는 구슬 모양의 물체.

모랑은 물경해진 흙을 손으로 쓸어내고 박힌 물체를 간신히 꺼내어 든다.

오랫동안 흙 속에 묻혀 있었는지 더럽혀진 구슬.

모랑이 구슬을 손수건으로 닦자, 붉고 영롱하게 빛나는 구슬이 선명히 드러난다.

설화 : (감탄) 와~이게 뭐야? 너무 예쁘다. 이 빛 좀 봐. 근데 이렇게 예쁜 구슬이 왜 여기에 떨어져 있는 걸까?

모랑 : 글썄, 누가 흘렸나보다. (구슬을 설화 앞으로 쑥 내밀며) 이거 너 줄까?

설화 : 고맙지만, 너가 주은 거니깐 너가 주인이지~그래야 하는 거잖아 (싱긋)

모랑, 설화의 상냥한 미소에 잠시 넋을 잃은 듯, 멍~하다.

어느새 그친 비, 설화는 나무 밖으로 손을 내밀어 비가 그친 것을 확인하고는 멍한 모랑을 잡아끈다.

범주사 쪽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설화, 설화의 미소에 잠시 넋을 잃었다 정신을 차린 모랑.

구슬을 재빨리 목에 걸린 줄로 꿰어 걸고는 설화의 뒤를 바짝 쫓으며 싱글벙글.

아이들이 걸어간 뒤, 정이품송 나뭇잎에 고였던 빗방울이 푹푹 떨어져 내린다.

### 썩3. 범주사 안-쌍사자 석등 앞

범주사 안, 쌍사자 석등 앞에서 쌍사자 석등을 신기한 듯 구경하고 있는 모랑과 흥미 없다는 듯 무심한 표정으로 쌍사자 석등을 지나치려는 설화.

막 걸음을 옮기려는 데,

모랑 : 이것 좀 봐봐! 한 마리는 입을 벌리고, 한 마리는 입을 다물고 있어!

설화는 발길을 멈추고, 쌍사자 석등으로 다가선다.

설화 : (놀람에 찬 목소리) 어머? 정말이네. 신기하다.

모랑 : 멋지다! 그치?

신기한 듯 초롱초롱한 눈이 빛난다.

큰 발견이라도 했다는 듯 자랑스러운 표정의 모랑.

그런 모랑이 귀엽다는 듯 미소 짓는 설화.

모랑 : 근데 왜 한 놈은 입을 벌리고 있는 걸까?

설화 : 글썄. 혹시...진실의 입이 아닐까?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서양에서는 진실이 아닐 경우 거기에 손을 넣은 사람의 손이 잘린다는 진실의 입이란 게 있대.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사자의 입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는 모랑.

잠시 뒤, 짧은 비명과 함께 얼른 손을 뺀다. 얼굴에 덩달아 놀란 설화.

설화 : (깜짝 놀라) 왜 그래? 정말 잘리기라도 한 거야?

모랑 아픈 듯 인상을 쓰다가 움켜진 손바닥을 보란 듯이 짹 편다.

편 손바닥에는 황금빛의 열쇠가 놓여있다.

설화 : 뭐야...정말 손이라도 잘린 줄 알았잖아

모랑 : (웃음) 근데 이젠 뭐지?

설화 : 열쇠잖아?

모랑 : 오늘 참 이상한 날이네. 구슬에 열쇠까지~(너스레) 혹시 보물찾기가 숙제였나?

모랑은 쌍사자석등 주위를 맴돌며 보물 찾듯 주변을 살살이 살피고, 그런 모랑이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내저으며 걸음을 옮기는 설화.

#### 원4. 대웅보전 앞

웅장한 대웅보전 앞에는 동자승으로 보이는 한 소년, 작고 아담한 체격에 뽀뽀 깎은 머리, 동글동글 귀여운 인상. 영루다.

영루는 대웅보전 마당을 씨리 빗자루로 쓸고 있다.

설화와 모랑의 모습을 힐끔힐끔 곁눈질 하며, 마당을 쓴다.

대웅보전을 올려다보던 설화는 대웅보전 계단 옆에서 이상한 문을 발견 한다.

설화 (혼잣말) : (가우똥) 여기에 이런 문이 있었었나?

모랑 : 뭘 혼자 중얼거려?

설화 : 깜짝이야. (가슴을 쓸어내린다) 언제 왔어?

모랑 : 방금! (히죽) 근데 뭘 그렇게 유심히 봐?

설화 : 이거. (대웅보전 계단 옆에 있는 문을 가리키며) 여기에 원래 이런 문이 있었나?

모랑, 설화가 가리킨 문을 바라본다.

모랑 : 글썄...있었던가? 없었던가?

설화 : (가우똥) 그리고 뭔가 이상해. 왜 이런 계단 옆에 문이 있을까? 이 문 안에는 뭐가 있는 걸까?

모랑 : 그럼 한 번 들어가 볼까?

모랑은 성큼 다가서더니 문의 문고리를 잡아 돌린다.

깜짝 놀란 설화는 그런 모랑을 말리려고 하지만 다행히 문은 잠겨 열리지 않는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설화.

설화 :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열면 어떡해! 이 바보야!

모랑 : 열리지도 않았는걸 뭐~

그러다 퍼뜩 생각난 듯 주머니에서 황금빛 열쇠를 꺼내들고 자랑스럽게 흔들며 보인다.

모랑 : 이 열쇠로 열면 되지 않을까?





도포 자락을 다시 뒤집어쓰고, 소리 하나 없이 사라지는 주술사. 달빛은 곧 구름에 가리워 다시금 어두워진다.

주술사에게서 약병을 받아 든 모랑은 멍하다. 약 병 을 든 모랑의 손 클로즈업 되면서 페이드아웃.

## 썸 57. 같은 장소-아침

푸르스름하게 빛을 받으며 아침이 밝아오고, 한줄기 빛이 아이들을 비춘다.

모랑 : (눈을 가늘게 뜨며) 벌써, 아침인건가?

그때 모랑의 발에 뭔가가 툭하고 건어차인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는 모랑. 아래를 보니 투박하고 꺼칠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거북이의 등껍질이다. 등껍질 가운데에는 ‘빙옥지’ 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 등껍질에서 쭈뼛거리며 빠져나오는 거북이의 목과 팔, 다리 그리고 꼬리. 가죽이 쭈글쭈글하다.

돌거북 :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우두머리 요괴가 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랑 : 어라? (신기한 듯) 거북이가 말을 하네?

돌거북 : 저는 청심정의 돌 거북인데, 전령님의 능력으로 잠시 사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랑 : 정말? 전령님께서?

돌거북 : (한시가 바쁘다는 듯) 이렇게 답소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갑자기 맑던 하늘이 온통 잿빛 구름으로 뒤덮이고, 툭툭 빗방울이 떨어진다.

모랑 : 앗! 차거!

떨어지는 빗방울에 일어난 아이들. 거북은 다급한 듯 모랑을 간절히 올려다본다.

돌거북 : 약병을 어서...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거북은 그대로 돌이 되어버리고, 고요한 정적을 깨어버리며, 선명한 파란 빛이 새어나온다. 모든 행동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그 빛을 바라보며 숨죽이는 아이들. 백련은 검을 뽑아들고, 모랑도 청룡도를 꺼내어 든다. 긴장된 눈빛들이 오가는 가운데, 엄청난 속도로 거대한 부채가 날아오더니 독한 바람을 일으켜 모랑은 청룡도를 떨어뜨린다. 모습을 드러낸 요괴와 동시에 청룡도를 향해 손을 뻗고, 청룡도에 먼저 손이 닿은 모랑.

우두머리 요괴는 약이 오른 듯 모랑을 적토마의 뒷발로 공격한다. 큰 상처를 입은 모랑.

설화 : 모랑! (찢어질 듯)

모랑 : (주문을 외듯) 약병...약병...

모랑은 품속에서 분홍빛 약병을 꺼내어 속에 든 분홍빛 액체를 뿌린다. 순간, 아이들이 가진 모든 보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지더니 섬광을 뿜어낸다. 엄청난 빛에 모두들 눈을 뜨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던 보물들은 하나로 합쳐져 모랑의 손에 쥐어진다.

우두머리 요괴는 모랑을 향해 세찬 불길을 내뿜고, 백련은 재빨리 모랑을 밀쳐낸다.

모랑 : (요괴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슬쩍 결눈질로 백련을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며) 백련! 괜찮은 거야?

백련 : (한 쪽 얼굴을 감싸 쥐고) 괜찮으니깐 넌 요괴나 신경 써!

모랑은 고개를 끄덕이고, 10가지의 보물의 능력이 합쳐진 청룡도를 꼬옥 쥔다. 요괴를 노려보며, 힘차게 요괴를 향해 돌진하는 모랑. 거칠게 피하는 요괴 대신 적토마를 찌르고, 적토마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요괴를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우두머리 요괴 : 이 발칙한 녀석!

사방에 가득한 안개가 깔린다. 안개에 잠시 주춤하는 모랑. 쟁 칼과 칼이 부딪치는 맑은 소리가 들리고, 서서히 안개가 걷힌다.

설화 : 모랑!

설화와 아이들은 모랑과 요괴가 쓰러진 쪽으로 달려간다. 갑자기 요동치는 요괴. 아이들은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나고, 요괴는 으아아악-끔찍한 소리를 내며, 검은 연기와 함께 그대로 재로 변해 모랑이 메고 있는 구슬 속에 봉인된다.

설화 : (쓰러진 모랑을 무릎에 뉘이며) 모랑! 너가 해냈어! (눈물을 글썽인다)

모랑 힘이 부치는 듯 얇은 미소를 지어보이고, 그대로 픽 정신을 잃는다.

## 썩 58. 신단수 나무 아래

꼭대기 산 정상에 위치한 신단수. 푸르고 무성해야 할 신단수는 마르고, 시들어 나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 혼한 벌레조차 기어 다니지 않는, 나무로서의 생명을 모두 잃어버린 듯한 신단수의 모습.

영루 : (신단수를 올려다보며 실망스럽다는 듯) 이게...신단수야?

백련 : 그 사악한 요괴가 신단수의 정기를 빼앗아서 그렇지 뭐. 곧 영롱하고 아름다운 나무

가 될 거야. 모랑! 어서 그 재를 신단수에 뿌려!

백련이 모랑을 향해 돌아선 순간 화상으로 심하게 일그러진 백련의 한 쪽 얼굴이 보인다.

모랑 : (미안) 백련...고맙다는 말...미안하다는 말...꼭 하고 싶었어...

백련 : (대수롭지 않다는 듯 화상 입은 얼굴을 한 번 쓱 문지른다) 이까짓 것...괜찮아.

모랑 : 하지만...나 때문에...

백련 : 괜찮대도! 덕분에 우린 수백 년 동안의 염원을 이룬 거잖아.

영루 : 맞아! 어쨌든 백련 너 생각보다 훨씬 우리를 좋아하는 거지? 그치?

백련 : (얼굴이 붉어진다) 뭐! 내가 왜 너희 같은 바보들을...!

설화 : 매일 찔찔맞게 말해도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

백련 : 뭐야. 왜 들이래. 난 너희처럼 어린애들은 싫다고!

모랑 : 그래그래. 너 맘 다 알아~

백련 : 뭐어? 너희들 진짜!

백련은 모랑과 아이들을 쫓고, 아이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신단수를 가운데 두고, 잡고 놓치기를 반복한다.

얼마 후, 완전히 지친 모습의 아이들은 신단수 아래 주저앉는다.

모랑 : 예휴. 힘들어~

영루 : 무슨 여자애가 그렇게 빠르냐?

백련 : 너 예전부터 자꾸 여자 여자 하는데, 여자한테 한 번 맞아 볼래?

영루 : 엄마야!

백련은 영루를 때리는 시늉을 하고, 화들짝 놀라 설화의 등 뒤로 숨는 영루.

백련 : ㅎㅎ 너 씹씹해 진 줄 알았더니 여전히 겁쟁이구나?

영루 : (민망한 듯 새빨개 진 얼굴) 아니야!

설화 : (웃음) 백련 너도 참.

모랑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목에 건 구슬을 소중히 꺼내어 든다.  
구슬을 한 번 어루만지는 모랑.

모랑 : (그동안의 일이 스쳐가는 듯) 평생 못 잊을 거야.

하나 둘 일어서 모랑의 곁에 서는 아이들.

서로 마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모랑은 신단수에 다가가 구슬 속 재를 신단수에 조심스레 뿌린다.

잠시 후, 잎사귀가 하나 둘 돋아나고, 시들었던 잎에 생기가 넘치면서 튼튼한 가지를 가진 영롱하고 신비스러운 나무로 변한다.

감탄을 금치 못하는 아이들.

설화 :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였어.

노을에 물든 붉은 하늘. 황금빛 해가 서서히 구름 속에서 아름다운 빛깔을 수놓으며 사라져 가고, 세상을 축복하듯 일곱 빛깔의 무지개가 흐릿하게 보인다.

영루 : 저것 좀 봐! 무지개야!

백련 : 비도 안 왔는데, 웬 무지개지?

모랑 : 하늘에 올라간 랑랑과 풍풍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선물이 아닐까?

와~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듯 황홀하고 행복한 얼굴로 무지개를 올려다보는 아이들.

설화 : 이제, 한반도와 한반도의 궁궐은 안전한 거겠지?

백련 : 그럼. 저기 세상을 좀 봐.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세상은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답다. 우거진 숲들이 보이고, 용기종기 모여 모락모락 연기를 피워내는 집들. 맑게 흐르는 바다와 강. 마치 천국 같은 느낌의 세상.

모랑 : (감탄) 우리가 사는 이 곳.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설화 : 으응. 우리의 궁궐도 생각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소중한 곳이었어.

백련 : 지켜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희생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영루 : 저길 좀 봐!

어느새 노을은 사라지고, 환한 보름달이 동실 떠올랐다. 온 세상을 다 비추겠다는 듯 밝고 환하게 빛난다. 까만 밤하늘 위로 총총히 뜬 별. 그 별 중 유난히 큰 별 하나가 반짝 빛나더니 사라진다. 별을 올려다보는 아이들의 모습이 카메라에서 점점 멀어진다.